



[문제 1]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문제에 답하시오.

(가)

이듬해 삼월, 화옥은 열네 살이 된 맏아들 화춘, 열 살이 된 둘째 아들 화진 그리고 열아홉 살이 된 조카 성생과 함께 후원의 상춘정에서 봄날을 즐기다가 그들에게 시를 지어보라고 하였다. 모두가 시를 지어 올리니, 화옥이 먼저 조카 성생의 시를 읽고는 감탄하였다.

“침착하고 중후하고 온화하여 진실로 군자의 글이로구나.”

다음에 화춘의 시를 읽었는데 화옥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종이를 던져버렸다.

“어린 자식이 이리도 막돼먹었으니 우리 집안이 망할 징조다.”

화춘은 놀라서 황급히 당 아래로 내려갔다. 성생이 말했다.

“갑작스럽게 시를 짓다 보면 잘못 지을 수도 있습니다. 흡족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다니요.”

화옥이 말했다.

“아니다. 시를 잘 짓고 못 짓고를 탓하는 게 아니다. 경박함과 음탕함이 시에 가득하니, 이런 놈은 앞으로 집안을 어지럽힐 것이다.”

그러더니 오래도록 미간을 찡그리며 언짢아했다. 그러다가 둘째 아들 화진이 쓴 시를 보고는 흐뭇하여 그 온화한 표정이 봄빛처럼 따스했다. (중간 생략) 화옥이 즐겨 보다가 성생에게 보여주었다. 성생은 두세 번 읊조리더니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단정히 모으며 말했다.

“여유롭고도 아름다운 품이 당나라 초기 시의 율격이 있습니다. 또한 화려하면서도 맑고 굳세니 당나라 왕건이 지은 시와 비슷합니다. 재주가 이 정도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

화옥은 다시 정색하고 화춘을 나무랐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충효와 법도가 전통이다. 오로지 바른 도로써 마음을 단속하여, 술 마시고 농담하는 자리에서도 음란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너는 나와 사촌 형 앞에서 조차 이처럼 어지럽고 방탕하니 참으로 경악할 일이다. 이후로는 마음을 고쳐먹고 행실을 닦으며 일거수일투족 모두 네 아우를 본받아 화씨 집안이 네 손에서 엎어지지 않게 해라.”

화춘은 무안하고 창피했다. 그날 밤 어머니에게 말했다.

“제가 노느라고 학업을 소홀히 하였으니, 책망하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아버님께서는 지나치게 노여워하시면서 ‘화씨 집안이 네 손에서 망한다’고까지 하셨습니다. 자식으로서 어찌 마음이 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아버님께서 저로 하여금 화진에게 무릎을 꿇고 매사에 배우라고 하시는데, 화진이 비록 재주가 유달리 뛰어나고 행실이 불 만하다고는 해도 세상에 어떤 형이 아우에게 배운단 말입니까?”

이후로 화춘은 공연히 화진을 원망하면서 자나 깨나 이를 갈았다. 그러는 사이 한두 해가 지나갔다. 화춘은 날이 갈수록 행실이 사나워지고 말이 거칠어졌다.

-<창선감의록>-

(나)

내가 정의하는 공감은 타인의 고유한 경험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반응할 줄 아는 능력이다. (중간 생략) 우리에게도 공감 능력이 있다. 타인의 감정에 자신을 실제로 이입하고 그들의 생각과 신념, 동기와 판단을 헤아림으로써 서로를 깊은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를 연결하는 끈으로서 공감은 우리가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도록 돕고, 고통에 처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동

기를 부여하며, 이성애 힘입어 정서적 균형을 찾도록 가르치고, 인간이 품을 수 있는 가장 높은 이상을 추구하도록 격려한다. 공감 능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조각조각 부서진 원형질처럼 이 행성을 떠돌며 안녕이라는 인사도 없이 서로 부딪히고 튕겨 나가길 반복할 것이다. 깨어 있지만 무감각하고, 의식이 있지만 무신경하며, 감정이 차 있어도 그것을 이해하거나 그것에 영향을 주지도 못할 테니 말이다.

공감은 타인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우리 인식을 제고시킴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더욱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알려준다. (중간 생략) 타인과의 연결을 끊고, 자신의 필요에만 집중하며, 남을 쉽게 단죄하고 용서하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더욱 험난한 삶을 살아야만 할 것이다. 반대로 공감을 통해 자신 및 타인과의 관계를 돈독히 한다면 삶의 슬픔과 고통을 더욱 수월하게 견딜 수 있다. 공감에는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는다. 공감은 부자나 고학력자나 똑똑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이의 것이다. 또한 공감에는 남을 전염시키는 특징이 있기에 당신이 먼저 베풀면 열 배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아서 P. 시아라미콜리, 캐서린 케첨-

(다)

제러미의 연구소에 존재하는 기술은 몇십 년 전에는 SF 속에만 존재했다. 그 기술은 흥미진진한 아이디어였지만, 극소수만 접할 수 있었고, 비싸고 실용성은 거의 없었다. 그러다 폭발적인 발전이 일어났다. 2014년에 페이스북은 오쿨러스 VR을 약 20억 달러에 인수했다. 같은 시기에 10달러에서 300달러 사이의 저렴하고 다양한 휴대용 기기들이 나오면서 일반인도 가상현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제러미에 따르면, 이것은 단순히 미디어 지형에서 점진적으로 일어난 변화가 아니다. 그는 “가상현실은 지금까지 발명된 어떤 매체보다 심리적으로 강력하다”라고 썼다. 그 비법은 제러미가 ‘심리적 현실감’이라 칭하는 것이다.

책과 영화는 우리를 이야기 속으로 옮겨다 놓지만, 독자와 관객은 자신이 독서와 영화 감상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가상현실은 사람들이 그것이 매체라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릴 정도로 그들을 완전히 품어버린다. 가상현실에 몰입하면 도시 위를 날아갈 때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떨어지는 잔해와 적의 포격을 피하기 위해 이리저리 뛰게 된다. 그들은 가상의 경험과 실제 경험을 혼동하는데, 그들에게는 그 경험이 현실적이기 때문에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가상현실은 환상을 강화하며 게임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 거의 확실하다. 그러나 가상현실이 주는 심리적 현실감 때문에 가상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실제 경험을 시도하게 해줄 수도 있다. 제러미는 바로 이 점이 가상현실 기술이 지닌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한다. 미식축구에서 쿼터백들은 가상현실을 활용해 경기장을 더 잘 시각화할 수 있고, 의대생들은 복잡한 처치를 연습할 수 있다. 두 경우 모두 가상현실은 신속하고 깊이 있는 학습을 가능케 해준다. 또한 가상현실은 사람들이 노인이나 다른 인종의 몸으로, 혹은 색맹인 사람의 눈으로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준다.

이와 같은 발견 때문에 예술가 크리스 밀크(Chris Milk)는 가상현실을 ‘궁극의 공감 기계’라고 극찬했다. 2014년 크리스 밀크는 당시 84,000명의 시리아 난민이 머물고 있던 요르단 자타리 난민 캠프에서 지내는 12살 소녀에 관한 가상현실 영화인 <시드라에게 드리운 구름>을 만들었다. 관객들은 가상현실 속에서 시드라를 현실처럼 ‘만나고’ 시드라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난민 캠프를 둘러본다. 밀크는 최근 그 영화와 그것을 보는 데 필요한 오쿨러스 헤드셋을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 가져갔다.

“그 사람들은 난민 캠프 텐트 안에 앉아 있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죠. (중간 생략) 하지만 어느 날 오후 스위스에서 그들은 모두 난민 캠프에 와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크리스 밀크에 따르면 “거기



앉아 있어본 것”이 중요했다.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단순히 시청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중간 생략) 그 애와 함께 앉아 있는 거죠. 고개를 숙이면 당신도 시드라가 앉아 있는 바로 그 땅에 앉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한 인간으로서 시드라를 더욱 깊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심층적인 방식으로 시드라에게 공감하게 되죠.”

-자밀 자키-

(라)

뱃슨은 공감이 우리를 자극해 타인을 돕게 한다는 견해를 옹호한다. 그러나 공감이 필연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온다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뱃슨의 말대로, “공감이 유도하는 이타적 행동은 도덕적이지도 않고 비도덕적이지도 않다. 그것은 도덕과는 상관이 없다.”

뱃슨의 다음 실험은 그 점을 잘 보여준다. 뱃슨은 피실험자들에게 어떤 자선단체에 관해 이야기했다. 그 단체는 불치병에 걸린 아이들이 얼마 남지 않은 생을 좀 더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선단체였다. 그런 다음 뱃슨은 치료를 받기 위해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한 아이의 인터뷰를 듣게 될 것이라고 피실험자들에게 말했다. 그리고 피실험자들을 둘로 나누고, 한쪽의 피실험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인터뷰를 듣는 동안 객관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노력하세요. 인터뷰하는 아이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사심이 없는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세요.” 또 다른 쪽의 피실험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했다. “인터뷰하는 아이가 일련의 일을 겪으며 기분이 어땠을지, 그런 일들이 그 아이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상상해보세요. 그동안 겪어온 일들이 이 아이에게 어떤 타격을 입혔을지, 그로 말미암아 지금 아이의 기분은 어떨지 느껴보려고 노력하세요.”

그 아이는 아주 밝고 용감한 열 살짜리 세리였다. 인터뷰에서는 세리가 앓고 있는 불치병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왔다. 그리고 세리는 재단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간절하게 이야기했다. 뱃슨은 양쪽 피실험자들에게 대기자 명단에서 세리의 순서를 앞당겨 달라고 특별히 요청하고 싶은지 물었다. 그리고 만약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이것은 곧 세리보다 앞에 대기하고 있던 다른 아이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 효과는 강했다. 공감을 유도하는 말을 들은 피실험자의 4분의 3이 세리의 순서를 앞당기고 싶어 했다. 반면에 공감을 억제하는 말을 들은 피실험자들의 경우에는 3분의 1만이 세리의 순서를 앞당기고 싶어 했다. 공감의 효과는 차례를 지키는 정의에 대한 관심을 지니는 쪽으로 발휘되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아이들을 희생시켜서라도 공감 대상인 세리에게 특별히 더 관심을 쏟게 했다.

-폴 블룸-

[문제 1-1]

(가)에서 ‘화춘’에게 벌어진 상황을 요약한 후, (나)의 견해에 비추어 ‘화옥’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서술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문제 1-2]

(나)의 중심 화제와 관련하여, (다)와 (라)는 각각 어떤 견해를 펼치고 있는지, 각각에서 언급한 사례를 논거로 들어 서술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문제 2] 다음 제시문을 읽고 아래 문제에 답하시오.

(가)

선거제도는 다양한 방식들을 포함한다. 많은 국가들이 선택하는 대표적인 선거제도로 비례대표제와 단순다수제가 있다. 비례대표제에서 유권자들은 정당 또는 후보에게 1표를 행사하고, 각 정당 또는 같은 정당 후보들에게 행사된 표는 합산되어 정당 득표율이 결정된다. 선거구에 할당된 의원 정수는 이 선거구에서 각 정당이 얻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배분된다. 예컨대, 의원 정수가 300명인 선거구에서 세 정당이 각각 10%, 40%, 50%를 얻은 경우, 이들 정당은 각각 30석, 120석, 150석을 얻는다. 단순다수제에서 유권자들은 후보에게 1표를 행사하고,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 유권자는 자신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낮다면,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당선이 가능한 차선의 후보에게 투표를 하는 성향이 있다. 따라서 단순다수제에서 유권자들은 당선 가능성이 낮은 군소 정당 후보보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주요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 단순다수제에서는 낙선한 군소 정당 후보들이 얻은 표들이 모두 버려지므로, 이들의 득표가 의석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비례대표제와 단순다수제보다 복잡한 선거제도는 이 둘을 섞어서 사용하는 혼합형 선거제도가 있다. 혼합형 선거제도에서 유권자들은 정당과 후보에게 각각 1표씩 행사한다. 혼합형 선거제도는 비례 의석을 지역구 의석과 연동하는가 아니가에 따라 연동형과 병립형으로 분류된다. 병립형은 비례대표 의원과 지역구 의원을 각각 비례대표제와 단순다수제로 선별한다. 병립형 선거제도에서 비례 의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배분되나 지역구 의석은 비례적으로 배분되지 않는다. 예컨대, 총 300석 중 250석의 지역구 의원을 선별하고 50석의 비례대표 의원을 선별하는 국가에서 지역구에서 강한 A당이 100곳의 지역구에서 승리하고 30%의 정당 득표율을 얻었으면, A당은 지역구 의석 100석과 비례 의석 15석을 얻는다. 군소정당 후보는 지역구에서 10%를 득표했어도 지역구에서 한 석도 얻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연동형 선거제도에서는 의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서 배분한다. 병립형과 연동형의 중요한 차이는 비례 의석의 배분 방식에 있다. 병립형 선거제도에서는 지역구 의석이 지역구 승리 여부에 의해 결정되고 비례 의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된다. 이에 반해 연동형에서는 두 종류의 의석 배분이 서로 연동되어 있다. 연동형에서는 전체 의석수에 정당 득표율을 곱한 값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차감한 만큼의 비례 의석을 배분한다. 따라서 정당의 지역구 의석이 증가할수록, 이 정당이 얻는 비례 의석은 줄어든다. 예컨대, 한 정당이 300명을 선별하는 연동형 선거제도에서 30%를 득표하고 지역구에서 한 석도 얻지 못하면 300석의 30%에 해당하는 90석에서 지역구 의석 0석을 뺀 90석의 비례 의석을 얻는다. 그러나 이 정당이 30곳의 지역구에서 승리했다면 90석에서 30석을 뺀 60석의 비례 의석을 얻는다.

연동형 선거제도는 병립형 선거제도가 가지고 있지 않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각 정당이 정당 득표율에 의해서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보다 더 많은 지역구에서 승리하게 되면, 연동형 선거제도에서는 ‘초과의석’이라는 것이 발생한다. 연동형에서 앞의 A당은 총 300석의 30%에 해당하는 90석을 배정받을 자격이 생긴다. 그러나 A당은 100곳의 지역구에서 승리하였으므로, 90석이 아닌 100석을 얻는다. 따라서 A당은 비례적인 의석 배분 결과인 90석보다 10석을 초과한 지역구 의석 100석을 얻게 되고 비례 의석은 1석도 얻지 못한다. 이처럼 지역구에서 강한 정당이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된 의석수보다 더 많은 지역구에서 승리하게 되는 경우, 이 정당은 자신이 얻은 정당 득표율을 초과하는 의석을 얻는다.

(나)

21대 총선에서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도입되었다. 준연동형 선거제도에서도 유권자들은 정당과 후보에게 각각 1표씩 행사한다. 준연동형에서는 비례 의석을 연동형 의석과 병립형 의석으로 나누고, ‘연동률’을 적용해서 연동형 의석을 배분한다. 예컨대, 총 300명을 선발하는 연동형 선거제도에서 지역구에서 약한 B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한 석도 얻지 못하고 30%의 정당 득표를 했으면, 이 정당은 90석에서 지역구 의석 0석을 뺀 90석을 비례 의석으로 가져간다. 반면 총 300명을 선발하는 준연동형 선거제도에서 50%의 연동률을 사용하는 경우, B당은 90석에서 지역구 의석 0석을 뺀 90석의 50%인 45석을 ‘연동형’ 의석으로 가져간다.

각 정당에게 연동형 의석을 배분하고 남은 비례 의석은 ‘병립형’ 의석이라 부른다. 예컨대, 각 정당이 얻은 연동형 의석의 합이 30석이고 전체 비례 의석수가 50석인 경우, 병립형 의석이 20석 남게 된다. 이럴 경우, 30%의 정당 득표를 한 B당은 병립형 20석의 30%에 해당하는 6석의 병립형 의석을 얻게 된다. 연동형 선거제도와 준연동형 선거제도에서 얻는 의석을 비교해보면, B당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동형에서 지역구 의석 0석과 비례 의석 90석을 얻게 되고, 준연동형에서는 지역구 의석 0석과 비례 의석 51석(연동형 45석과 병립형 6석)을 얻는다.

이처럼 복잡한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연동형 선거제도에서는 지역구에서 강한 정당이 비례 의석을 배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면 준연동형 선거제도에서는 지역구에서 강한 정당도 병립형 의석을 통해 비례 의석을 배정받을 수 있다. 예컨대, 지역구 100곳에서 승리하고 30%의 정당 득표를 한 A당은 연동형 선거제도에서 비례 의석을 한 석도 얻지 못한다. 반면 A당은 준연동형 선거제도에서 연동형 의석은 한 석도 얻지 못하지만 6석의 병립형 의석을 얻을 수 있다.

(다)

준연동형 선거제도를 채택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두당은 지역구 후보만 내고 각각 비례대표 후보만 내세운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각각 지역구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를 지지하고 정당 투표에서는 자신들의 위성정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하였다.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163곳의 지역구에서 승리하였고 더불어시민당은 33.4%를 득표하여 17석의 비례 의석을 얻었다. 미래통합당은 84곳의 지역구에서 승리하였고 미래한국당은 33.8%를 득표해서 19석의 비례 의석을 얻었다. 선거가 끝난 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각각 자신의 위성정당과 합당하였다.

[문제 2-1]

정당들이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 비율이 결정되는 선거제도를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라 부른다.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일수록, 득표율과 의석률이 같아진다. 단순다수제, 비례대표제, 병립형 선거제도를 비례성이 높은 순으로 나열하고, 답에 대한 이유를 (가)의 내용을 근거로 제시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

[문제 2-2]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위성정당의 창당을 촉진하는 이유를 (나)에서 제시된 A당과 B당의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다)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21대 총선 당시 위성정당을 설립한 이유를 준연동형 선거제도의 특징으로 설명하시오. 글의 분량은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400(±100)자로 할 것. (25점)